

충북 진천 이월 초등학교 및 유치원

Planning Ea-Weol Elementary School & Kindergarden

이 광 만*
Lee, Kwang-Man

■ 설계 개요

- 위치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667번지의 7필지
- 대지면적 / 16,569 M² 건폐율 / 15%
- 건축면적 / 2,488 M² 용적율 / 31%
- 연 면 적 / 5,467 M²
- 규 모 / 초등학교 : 지하1층, 지상3층 (18학급)
 유치원 : 지상1층(2실)
- 구 조 / 본관 : 철골조, 후관 : 철근콘크리트조
 유치원 : 경량 철골조
- 외부마감 / 외단열시스템, 투명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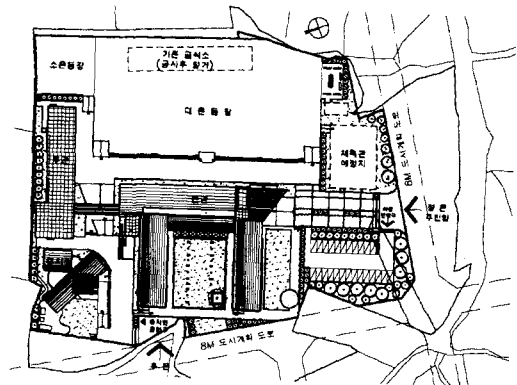


그림 1. 배치도



사진1. 이월 초등학교 전경

*간삼건축사사무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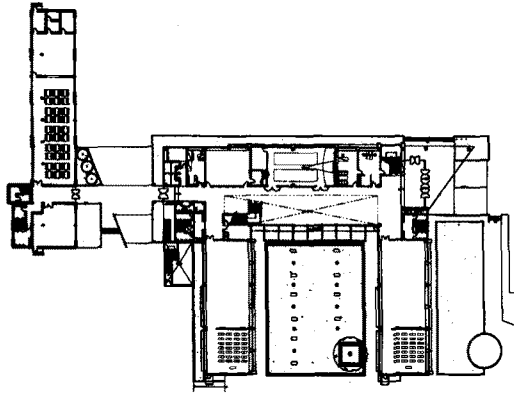


그림 2.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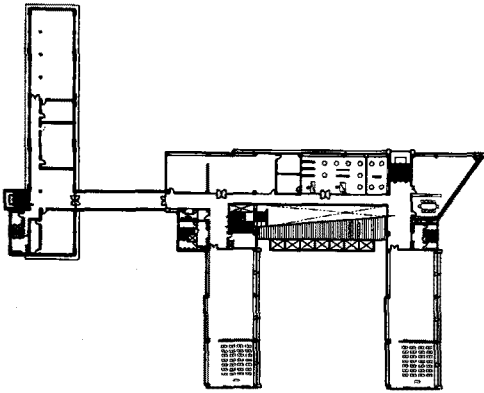


그림 3.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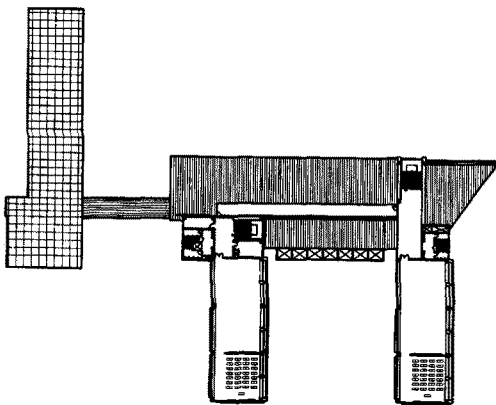


그림 4. 3층 평면도

본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처음 시공되는 철골조시범학교로서, 교육청의 남다른 열의와 포스코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새로운 타입의 초등학교의 표본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현대화 되어가는 농어촌의 여러요구를 수용하고, 급변하는 교육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범적인 학교가 되어야함과 동시에 앞으로 많은 학교가 당면할 문제인 기존교사의 일부를 철거하고 신축건물과 증·개축에 의한 기존건물이 공존하는 학교로서, 개수후 사용하게 될 기존건물의 설비등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공사중 수업대책의 수립, 도시개발 계획에 따른 대지 경계의 단계적인 변화등 많은 부분에서 고려할 점이 부가적으로 대두되었다.

처음 현장을 답사하였을 때, 잘 꾸며진 진입부의 정원, 아담한 연못과 넓은 논밭을 배경으로 단아하게 놓여 있는 교사, 이 학교의 전통을 잘 말해주는 수려한 몇그루의 나무는 단순히 피상적으로 상상하고 다가왔던 여타 다른 초등학교와는 다른 풍경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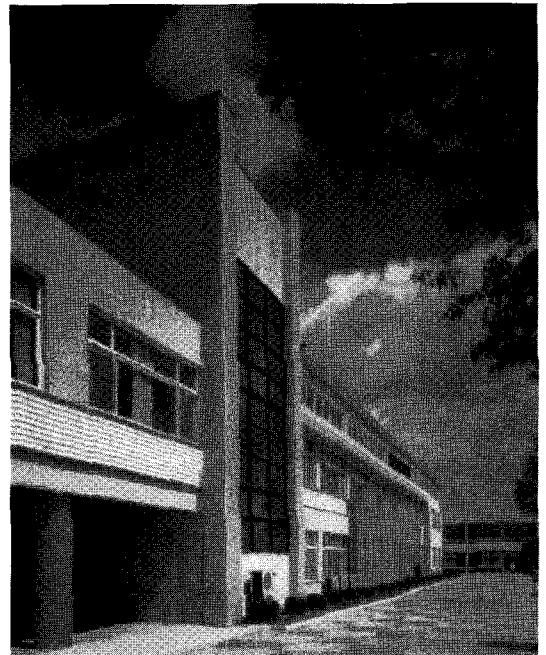


사진 2. 주출입구 전경

많은 기존 장점요소들을 극대화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만들 수 있을 까를 고심하였다.

본 대지는 대지에 걸쳐 남측과, 서측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되어지는 시점과 현 대지와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었다. 결국, 건물 및 운동장의 배치와 진입은 기존의 잘구성 되어있는 조경 및 현재의 정문과 후문을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조성되는 대지형상 및 예상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이 진입의 설정을 기본으로하여, 본 대지의 정문쪽에 본관을 배치, 기존 후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출입이 가능한 후문쪽에 유치원을 배치하여, 초등학교와 통합적 또는 독립적 운영이 모두 가능하도록 배치하였으며, 철거 예정인 기존 급식소 및 본관쪽으로 남북 방향의 운동장을 배치하여, 본 공사가 진행중에도 기존의 건물을 이용하여 별도의 수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아울러 이 운동장을 중심으로 체육교육 및 각종 행사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에의 개방, 특별교실, 방과 후 놀이시설, 급식소 등과의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본관동은 교실동을 '일반교실+교사연구실+화장실' 을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여 남향으로 배치하고, 아울러 각자의 개별 중정을 갖도록 유도

하였으며, 특히 저학년의 경우 교실에서 옥외로 직접 연결하여 야외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 단위들은 다시 남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indoor street를 구성, 다소 구획이 필요한 시설(과학실, 기술실, 급식소 등)을 수용하는 후관과 연결통로로 연계시킴으로서 기능적인 전이와 함께, 별도의 공동구가 없이 설비 line이 본관에서 후관으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indoor street는 각각의 단위들을 연결시킴과 동시에, 관리 zone 및 다소 정적인 특별교실,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실들을 다양한 공간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자칫 심리적으로 길어질 수 밖에 없는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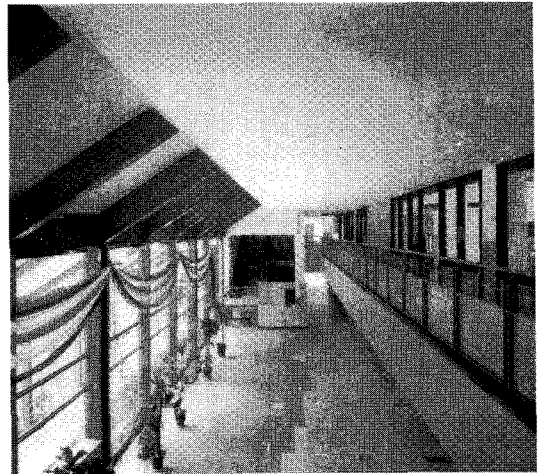


사진 3. 다목적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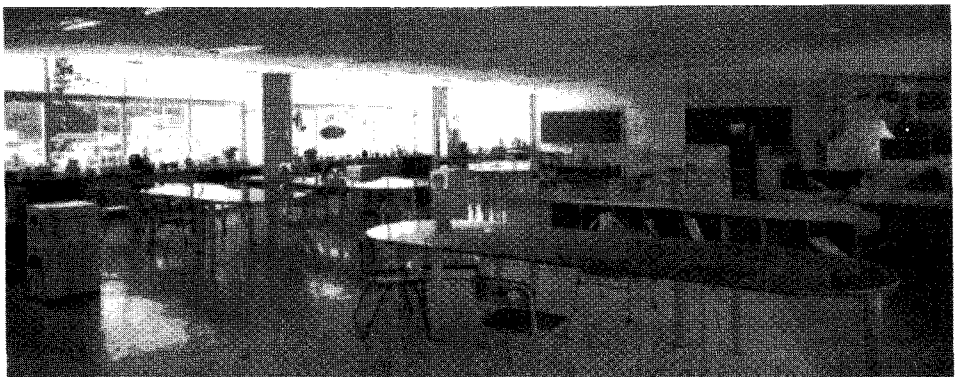


사진 4. 일반교실

을 단축시키며, 일반교사동과의 교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업에 방해없이 지역주민 및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도되어졌다.

진정한 열린학교, 열린학습이란 무엇일까? 첨단학습장비로 무장되어진 교실들은 학생 개개인이 컴퓨터를 갖추고 있고, 단지 몇 발자국만 움직이면 교실 한켠에 마련된 실험장비로 실습해보고, 전동 스크린에 투사되는 움직이는 화면을 보고, 잘 꾸며진 휴게공간이 놓여 있으며, 또 이 모든 것은 교탁에 꾸며진 첨단장비에 의해 간단히 조작되는, 하나의 교실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소위 '미래형 열린학교, 열린교실'을 제시하는 모델을 보고, 많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열린학교란, 단순히 첨단장비-때때로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학습에 장애가 되는-로 무장되거나, 단순히 열려있는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공간은 무엇을 향해 열려있는가, 또한 그 공간을 향해 어떠한 역할을 제공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보다 근본적으로 열린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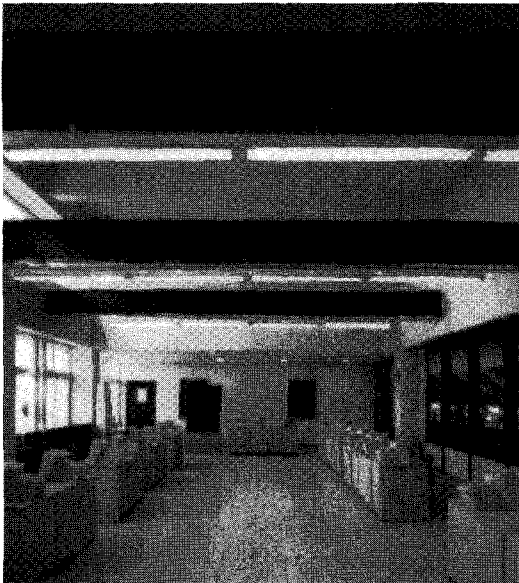


사진 5. 특별교실

열린교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지는 않을까?

다소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이월 초등학교는 그러한 관점에서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완전히 별개로 처리한 국내의 다른 학교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

먼저, 일반교실은 작은 하나의 공간(1개실 규모)과 또 하나의 큰 공간(2개실 규모)이 하나의 실로 구획되어 있고, 이는 집단학습과 자유학습에 따라 배치되어질 가구의 가변성에 따른 단순한 시각적, 동선적 구획만을 갖는다. 아울러 각 벽면의 활용성을 극대화한 비어있는-변화하는-작업장으로 구획하였다. 이러한 실의 최소한의 구획으로 실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일반교실군은 다시 다양한 기능이 부여된 indoor street에 면한 다목적홀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였다.

학습의 과제를 부여받은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indoor street에 구성되어 있는 특별실들을 이용하고, 다목적홀에서의 다양한 행태와 연계되어 학교 전체를 이용한 열린교육도 가능하리란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열린교육은 어린이들이 소그룹의 학우들과 또는 선후배가 함께하는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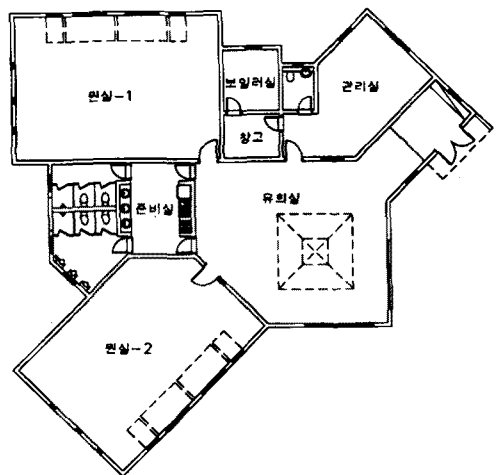


그림 5. 유치원 평면도

로그램이 되어 질 수도 있으며,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단들은 다목적홀 또는 운동장을 향해 열려 있도록 계획하였다.

본 건물은 공기가 짧고, 변화가 용이한 철골 건물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업화가 가능한 부품의 이용, 향후 교육 형태의 변화에 따른 자유로운 변화가 가능한 건식공법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추후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에 차음 수벽 등의 건축적 장치가 고려되었다. 또한 신체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인 만큼, 유치원생에서 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을 포용할 수 있는 디테일이 선택되었다. 세로로 긴 문손잡이, 학년별 다양한 높이를 갖는 위생설비, 다양한 높이의 어린이의 크기에 맞는 유치원의 작은 쪽창문, 한쪽 벽면의 벽하부까지에 이르는 게시판 계획, 각 학년별 주제색의 부여, 각 zone별 기능색의 부여, 각각의 기능에 대한 바닥 패턴 계획 등은 이 집의 주인이 되는 어린이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훌륭한 건축은 훌륭한 건축가만으로 만들어 지지 않는다.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의 삼박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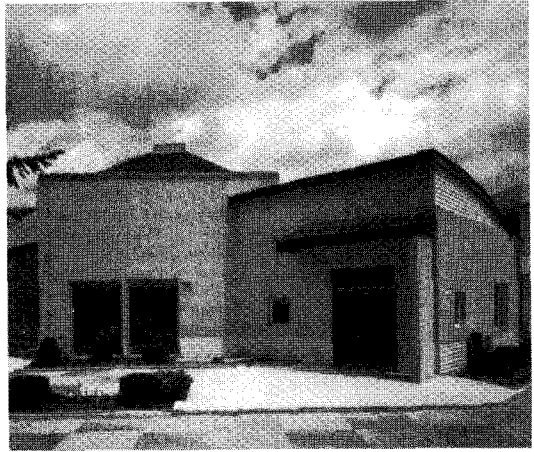


사진 6. 유치원 전경

잘 조화되었을 때 비로소 만들어 진다.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설계기간 밖에는 갖지 못하였고, 처음 의도되었던 여러부분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모두 만족되어 질수는 없었지만, 각 분야에서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분들의 열의와 수고에 감사하며,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초등학교에 하나의 대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